

| 신년사 |

사회적 대화가 더욱 절실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노동자와 경영자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와 모든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된 한 해였습니다.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란 사회적 대화의 목표를 담은 2.6. 공동선언을 노사정이 함께 발표하였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인구조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해 노사정이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노동시간 합의로 이끌어 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역시 커졌습니다. 특히, 고령자 소득공백, 국민연금 개혁을 계기로 계속고용의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 대화가 더욱 절실합니다.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감에 더해 저성장이란 거대한 구조적 문제가 눈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노동약자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합니다.

우리에게는 '97년 말 IMF,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년 코로나19 등 위기 때마다 노사정이 힘을 모아 극복한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현재의 위기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금년 1월 계속고용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와 함께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구체적인 고령자 계속고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시간·임금 등 낮은 제도의 혁신, 노동시장 양극화 등 당면한 현안과 플랫폼 노동, AI 등 미래노동시장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기후변화, 지역소멸 등 의제의 다양화를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지속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대립과 반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려하지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치유와 회복을 뜻하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안정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 출범

- AI시대,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다 -



▲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가 1월 8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발족되어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왼쪽에서 아홉 번째)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왼쪽에서 열 번째),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 일곱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월 8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공동좌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각 2명, 정부(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각 1명, 전문가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었다. 운영기간은 발족일부터 10개월 뒤인 11월 7일까지로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연구회는 ▲인공지능 기술도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공동좌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공동좌장)이 인사말씀을 전했다.

▲인공지능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인공지능 기술 교육 및 훈련 등 인재양성 방안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불확실한 미래를 아무런 준비 없이 마주하기 보다는 기술 발전을 명확히 이해하고 노사정 이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연구회에서 기술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동환경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지연 공동좌장은 “연구회 논의를 통해 우리가 다뤄야 할 핵심 과제와 방향성을 정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인공지능(AI)의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김덕호 공동좌장은 "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스스로 묻고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며, "노사정 이 함께 참여한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고 연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의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의 발제와 토의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잠재적 위험을 검토하고, 이러한 위험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다음 회의 이후에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이 더욱 심층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eslc**

담당 전문위원실 김지수 전문위원

<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 위원명단 >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공동좌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계위원	최정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 국장
	이상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 국장
경영계위원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박성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과장
정부위원	양현수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
	고상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혁신과장
전문가위원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석	가천대학교 반도체대학 석좌교수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진희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최흥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위원회 회의체 운영 계획

특별 위원회

|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4년 5월 30일 출범하여 올해 2월까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 산업전환, ▲ 불공정 격차해소, ▲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 의제를 대상으로 논의한다. 지난 9차 회의('24.10.2.)에서 산업전환과 플랫폼노동 관련 회의체를 설치하고 인공지능과 노동 연구회를 운영할 것을 본위원회에 제안했다. 이어

10차 회의('24.10.16.)에서 남은 의제에 대한 집중 논의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1월말까지 논의하여 결과를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며, 특위는 이에 근거하여 추후 논의방향과 과제를 본위원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eslc**

담당 전문위원실 손영우 전문위원

의제별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 이영면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24년 11월 28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이영면 위원장의 노·사·정·공 위원 11명, 운영기간 '24.6.27.~'25.6.26.)는 '초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까지 전체회의의 10회, 간사회의의 3회, 공익회의의 10회를 진행하였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한 사실 확인(fact finding), 해외사례 검토를 하였고, 노사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기업 현장 관계자, 중소기업 관계자, 청년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도 하였다.

2025년 1분기에는 핵심 의제인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1월 23일에는 대국민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정동1928아트센터, 14:00~17:20)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월부터는 지역순회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기타 의제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ESIC**

담당 전문위원실 김태환 전문위원

의제별 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위원장: 이인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4년 11월 1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위원회' 제1차 현장관계자 간담회에서 현장 근로자가 발언하고 있다.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하여, '24년 6월 21일 발족 이후 논의를 진행하였다. 당사자인 노사 이견이 큰 상황에서 공감대 형성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하여, 먼저 노·사 및 전문가 발제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논의하였다.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관련한 현황 및 어려움,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 등 실태를 공유하기 위해 현장의 노사 당

사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재검토하고 논의 가능한 부분을 모색하여, 필요하다면 공론화할 예정이다. 위원회 내부 논의 및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노사 간 의견이 모아지는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합의가능한 부분에 대해 합의 도출도 검토할 계획이다. **ESIC**

담당 전문위원실 송해순 전문위원